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니?

MBC <나 혼자 산다>와 SBS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JTBC <한끼줍쇼>까지

전하림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의 큰 흐름은 단연 ‘리얼’일 것이다. 리얼리티, 리얼 예능이라는 표현은 <1박 2일>이나 <무한도전>부터 사용되는 수식어였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리얼함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데에 있다. 리얼함의 ‘수위’보다는 ‘강도’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처음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리얼함이란 미리 연출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큰 웃음을 주고, 예기치 못한 큰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예능 프로그램은 점차 리얼함을 살린 포맷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연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혹은 우발적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측면에서의 리얼 예능이 주 포맷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 리얼함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깊어진 탓인 걸까? 이제 예능에서의 리얼함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앞서 말한 리얼리티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타인의 일상, 특히 스타의 일상을 '합법적으로' 훑쳐보게끔 해주면서 그간 우리가 가져왔던 궁금증을 해소해준은 물론, 재미까지 준다는 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세가 되었다.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그 대상을 넓혀나간다. 우리의 욕망이 스타뿐 아니라 내 이웃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데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최근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방송이 연예인의 일상에 밀착된 형태라는 점을 비롯해 MBC의 〈나 혼자 산다〉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의 〈미운 우리 새끼〉 등이 스타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JTBC의 〈한끼줍쇼〉가 일반인의 집 안을 보여준다는 점을 통해 리얼리티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이미 〈빅브라더(Big Brother)〉와 같은 포맷이 영어권을 강타했음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통제하는 존재인 '빅 브라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청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흐름들은 어쩌면 TV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관음증적 욕망'에 응답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저 유쾌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데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급하게 먹다 목에 걸린 사과 조각처럼 어딘가 불편한 이 지점들은 어디에서, 왜 생겨나는 걸까? 왜 이들을 그저 단순히 누군가의 일상을 훑쳐보는 것을 통해 재미를 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없을까?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MBC의 〈나 혼자 산다〉와 SBS의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JTBC

의 〈한끼줍쇼〉라는 세 편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다.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형식’은 유사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 세 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완벽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내가 〈미운 우리 새끼〉를 보지 않는 이유

요즘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가 연일 화제이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늘 〈미운 우리 새끼〉와 관련되어 있고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편집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미운 우리 새끼〉를 보지 않는 한 시청자의 글이다. 나는 왜 〈미운 우리 새끼〉를 보지 않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 중 특히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유쾌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그렇기에 “왜 보지 않을까?”를 묻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일 수 있다. 유쾌한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불쾌함의 이유를 찾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믿는다.

먼저 〈미운 우리 새끼〉는 스타 연예인의 어머니가 출연한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어머니 패널들 때문일 것이다. 이미 MBC

의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은 자주 다루어졌다. <미운 우리 새끼>는 그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노총각 연예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의 어머니들을 패널로 등장시켰는데 이것이 좋은 반응을 끌어내며 프로그램의 흥행을 뒷받침했다.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어머니 패널들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쓰는 육아 일기”라는 설명처럼 <미운 우리 새끼>가 ‘육아 예능’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육아 예능과는 달리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스타라는 점에서 어머니 패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왜 ‘다 큰’ 나의 자식을 또다시 키워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미운 우리 새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미운 우리 새끼>는 매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러 노력한다. 나이가 쉰이 넘어도 결혼을 못했으면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곧, 다시 쓰는 육아일기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미운 우리 새끼>는 결혼을 하지 못한, 혹은 결혼에 실패한 40~50대 남성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측은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미운 우리 새끼>는 출연진의 영상과 엄마들의 못마땅한 리액션, 그리고 진행자들의 농담 섞인 멘트를 일정 비율로 버무려 한 회분의 방송을 내놓는데, 그 마무리는 언제나 똑같다. 노총각은 불쌍한 존재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쓸쓸한 음악과 우울한 자막이 어우러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이때 “아이고, 얼른 장가를 가야 하는데”라며 엄마들과 진행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면 화면 속의 출연진들이 보여주는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모두 ‘노총각’이라는 전제에서 해석된다. 그가 실제로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완전한 어른임에도 ‘상투를 틀지 못한’ 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기괴하

고 철없는 행동에 불과하며 고쳐져야 하는 일종의 증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인지 <미운 우리 새끼>는 종종 공개 구혼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 어머니들에게 온 세상의 여성들은 결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딱 두 가지로만 분류되며,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아들들의 증상 호전을 위해 결혼이 필요함을 호소한다.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갱생시키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 노총각 아들의 문제들은 결혼이 해결해준다는 굳은 믿음에 뿌리를 둔 채로.

TV 속에서 늘 엄마의 꾸지람과 한숨, 걱정, 근심이 마치 강보처럼 그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이 곧 먼 미래의 내 모습처럼 느껴진다. 신선함이 없는 늙은 육아예능을 통해 우울할 나의 미래를 그려낸다는 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나를 유쾌하게 해주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분명한 몫을 한다 해도 언제나 문제아로 살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

혼자라서 행복하다는 거짓말, <나 혼자 산다>

2013년 봄 첫 방송 이후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의 대명사가 된 MBC의 <나 혼자 산다>는 수많은 톱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혼자 산다>는 언뜻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인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먼저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것처럼 <나 혼자 산다> 역시 그저 재미있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대안 가

족의 다양한 형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읽히는 〈나 혼자 산다〉가 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 톱스타의 일상을 통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들여다보고 공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는 〈나 혼자 산다〉는 사실 늘 똑같은 결말로 끝을 맺는다.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롭다’가 바로 그것이다. 출연자가 스스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출연자의 모습을 보는 진행자와 고정 패널들이 늘 안타까운 탄식을 내뿜는 것을 통해 같은 결말을 도출한다. 〈나 혼자 산다〉에서 ‘혼자라서 행복하다’는 것은 언제나 거짓말이 된다. 스스로가 처량해 보이는 것을 막는 포장용 거짓말이거나,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VCR을 보는 고정 패널들이 판단하는 거짓말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다. 〈나 혼자 산다〉 안에서 혼자 사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외로워야 하고 언제나 둘 혹은 그 이상을 꿈꾸어야만 한다. 결국 지금의 삶은 미래에 있을 둘 이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특히 출연자가 여성일 경우 더욱 도드라지는데 한혜진과 이소라, 그리고 김연경 편이 그 예이다. 그녀들의 일상을 다룬 에피소드들 역시 앞서 말한 결말을 맞는데, 이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세 여성의 일상을 관통하고 묶어주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다. ‘나도 여자랍니다’라는 메시지이다.

2017년 2월 방영된 〈나 혼자 산다〉 ‘한혜진’ 편 에피소드에서 한혜진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할 지점들이 있었다. 모텔이라는 직업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이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만 하고 먹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어디에도 남성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것은 한혜진의 ‘여성성’이었다. 쉽 없이 전을 부치는 모습이나 조카를 예뻐하는 모습들을 보며 MC와 패널들은 ‘천상 여자’라며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무뚝뚝한 한혜진의 평소 성격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혜진’ 편의 에피소드가 방영되는 내내 방송은 ‘걸크러시’ 한혜진의 숨겨진 ‘천상 여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툭 모델’ 한혜진은 결국 프로페셔널한 모델이지만 ‘천상 여자’이면서, 언제든 남자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애교가 없어 걱정하는 노처녀로 다루어진다.

〈나 혼자 산다〉에서 김연정이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모습, 이소라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목소리가 바뀌는 모습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비추어진다. 이는 비단 한혜진뿐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여성’들을 방송에서 소비하는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하다. 일할 때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며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천상 여자예요’라는 식의 진부한 멘트를 할 때 방송 관계자들과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에게서 숨겨진 반전 매력을 찾았다고 기뻐한다. 그녀들에게서 ‘چه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신붓감’이라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즉 혼자 당당히 살아나가는 여성을 다시 가부장제 질서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나 혼자 산다〉는 쉽 없이 고군분투한다.

이처럼 그간 수많은 방송들이 ‘여성’, 특히 혼자 사는 성공한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과 그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언제나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여성이라도, 그녀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멋지고 당당한 여성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성들 역시 가정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면, 〈나 혼자 산

다)를 다양한 대안 가족의 모델을 제시하는 긍정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도 그들의 ‘한 끼’에는 관심이 없다: JTBC 〈한끼줍쇼〉

앞서 최근의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강화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쇼적인 측면에서 ‘리얼리티쇼’를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의미의 리얼함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지점이다. 어쨌거나 스타의 ‘일상’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친근함’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때로 아침방송 속의 짙막한 코너를 통해서 다루어지기도 했고, SBS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같은 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다. 스타의 일상은 언제나 시청자들에게는 궁금하고 흥미로운 대상이었다.

그러나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즐거움만 남은 것은 아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종종, 그 일상에서 괴리감을 느끼곤 했던 것 같다. 추레한 모습이라며 부끄러워하는 스타가 걸친 명품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썩한 얼굴을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집어 드는 명품 선글라스들, 정리가 안 되었다며 조심스레 공개하는 대저택 등이 자꾸만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괴리감은 ‘스타 연예인’ 그 자체를 넘어 그들의 2세에게까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들이 협찬받았다는 상품 정보를 찾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던 많은 부모 시청자들이 느낀 박탈감 역시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여전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박탈감이나 괴리감보다 더 큰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스타 연예인이 등장하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속 세상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판타지라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시청자들은 스스로를 절대자의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절대자에게는 그만의 쾌감이 존재한다. 물론, 내가 직접 그 세계를 확보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TV 속의 세계가 아무리 빛난다 해도 내가 쥔 리모컨 버튼 한 번이면 사라진다는 데에서 오는 절대자의 쾌감은 괴리감과 박탈감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절대자의 쾌감은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는 방식이 TV라는 고정 매체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식 매체로 변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비단 톱스타만의 일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그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JTBC의 <한끼줍쇼>이다.

스타 연예인이 사는 세계와는 달리 <한끼줍쇼> 속의 세계는 현실과 판타지의 성질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는다. 존 피스크(John Fiske)는 자신의 책 『텔레비전 문화(Television Culture)』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리얼함’에 있다고 말했다. 이때의 리얼함이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담아내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의 ‘real’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와 같다’는 측면에서의 ‘real’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스타 연예인의 일상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리얼함과는 달리 <한끼줍쇼>는 리얼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지점에서 볼 때, (물론 문을 열어주는가 하는 실질적 문제 때문에 일

만화할 수는 없지만) 〈한끼줍쇼〉의 대상이 대부분 ‘살 만한’ 어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 만한 가정이라는 것은 때론 소박한 신혼부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저택을 소유했으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중년부부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갑작스러운 손님에게 따뜻한 한 끼를 지어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떤 시청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비슷한 삶을 살아온 타인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괴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타인은 더 이상 판타지의 성격을 가진 현실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시청자를 절대자의 위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끔 한다.

만약 이들이 우리 집의 초인종을 누른다면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어떤 시청자는 더 이상 절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작정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어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잊혀져가는 옛 동네의 기억을 복원한다는 〈한끼줍쇼〉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이 괴리감과 박탈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먼 길을 돌아 한곳에서 만나다: 〈미운 우리 새끼〉와 〈나 혼자 산다〉, 그리고 〈한끼줍쇼〉

앞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물론 이 세 프로그램들에 불쾌한 지점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없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세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먼저, 이른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공통점이 짙은 두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와 〈나 혼자 산다〉는 그 형식뿐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함께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해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같은데, 그것은 바로 ‘고전적 가족 개념의 복원’의 필요성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독거 형태의 1인 가구를 보여주며 그들은 한목소리로 ‘혼자 사는 삶은 외롭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외로움은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즉 ‘고전적 형태의 가족’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의 고전적 형태의 가족 개념이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 가족 개념은 두 프로그램에서 곧 완성되고 완결된 형태의 가족이며 모두가 마땅히 도착해야 하는 골인 지점이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은 언제나 채워져야 할 의무가 있는 네거티브(negative)한 가족이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채워진 형태의 포지티브(positive)한 가족인 셈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선 속에서 대안적 가족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어느 미래에는 달라질 것을 전제하며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미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프로그램은 이러한 믿음 이데올로기들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재미와 웃음으로 설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는 일반인의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에도 존재한다. 이는 〈한끼줍쇼〉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형태가 대부분 고전적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또, 그것이 단순히 진행자의 역량이라 할지라도 〈한끼줍쇼〉 역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자연스레 자녀 계획을 묻고, 그들의 미래에 아이를 전제하며 ‘비로소 완성된·행복한 가족’의 형태를 거듭 이야기한다. 각기 다른 제작 의도로 기획된 세 프로그램이 사실은 모두 같은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 혹은 의

도와 상관없이 같은 가치를 생산하며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들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하는 기능 때문이다. 그들은 ‘고전적 가족 개념의 복원’이라는 같은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기준에 대한 옳고 그름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고전적 가족 개념의 복원’이라는 같은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기준선에서 벗어난 이들을 재단한다.

또한 1인 가구와 같은 대안 가족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들은 내가 언젠가는 〈미운 우리 새끼〉 속 ‘미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혼자인 모든 이들은 반드시 외롭다는 결말은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독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요소들을 지워버리는 셈이다.

‘고전적 가족 개념’의 틀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드러나 있는가 숨겨져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그들은 그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불행’한, 혹은 불행‘할’ 존재로 미리 규정하려 한다. 다른 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국 TV 속의 행복 속에 ‘나’는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TV를 끈다. 이런 노랫말이 떠오른다.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꺾어.” 이제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 “날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꺾어.” 도망치듯 TV를 끄는 이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행복의 여러 갈래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면서 말이다.